

올해 물가상승률 5.2% 전망...24년만에 '최고'

한은, 기대인플레이션·수요측 압력 등 고려 성장률은 2.7→2.6%...내년 물가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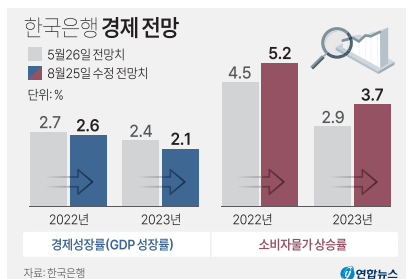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대 초반까지 크게 올려 잡았다. 동시에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2.6%로 더 낮췄다.

내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지겠지만, 성장률 역시 크게 낮아져 2%를 힘겹게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초까지 5~6%대 물가 상승률"
한은은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기준 전망치(4.5%)보다 0.7%포인트(p)나 높고, 한은 소비자물가 연간 전망치로서 1998년(9.0%) 이후 2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망대로 올해 5%대 상승률이 실현되면,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이 이처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이미 6%를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 전년동월비 6.3%)과 사상 최고 수준인 4%대 기대인플레이션을, 대면소비를 중심으로 커지는 수요측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면서,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5~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가 정점의 경우 지난달 예상했던 '3분기 말~4분기 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설비투자 -3.8%로 하락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낮아졌다. 미국·유럽·중국 등의 경기 하강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성장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유럽 성장률 1~2%p 하락 가능성,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등에 따른 중국 경제 불확실성을 주요 경제 하방 요인으로 반영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

면서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 흐름도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수 예상 증가 규모도 58만명에서 7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실업률(3.1%)에는 변화가 없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성장률은 각 3.7%, 2.1%로 예상됐다. 반기별로 나눠보면,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성장률은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농어촌공사, 나주호서 을지연습 훈련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 을지연습 전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실제훈련으로 지난 24일 나주시 나주호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주관한 가운데 나주시청과 인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중요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폭악과 드론 공격으로 제방이 파손된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등 초동조치, 긴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반 편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장비·인력지원 등 대응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점검했다. /기수희기자



목포세무서, 세정지원 간담회 실시

목포세무서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외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잇따라 방문, 해당 산업단지 입주업체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 관련 업체들은 저가수주 및 숙련공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을, 식품 가공업체는 고물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및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각각 호소하며 납부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이에 노현택 목포세무서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소통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성기자



광주국세청, 호우 피해복구 성금 기탁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해 25일 성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성금은 전복과 수도권, 중부지역 등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운영석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춧돌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

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은성기자

디자인바이, 굿디자인어워드 출품 5종 'GD' 선정

광주 소재 제품디자인 전문회사...대기질 측정기 등 호평

광주지역 디자인기업 ㈜디자인바이가 '2022 대한민국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 출품한 디자인 5종이 한꺼번에 'GD(우수디자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5일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바이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22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카나리아 대기질 측정기' 등 제품 디자인 5개가 '굿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굿디자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우수 디자인 인정 제도로 올해 상용화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미성·독창성·사용성·경제성·혁신성·환경친화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굿디자인'으로 선정한다. 총 6점을 출품해 5점이 굿

디자인으로 뽑힌 것으로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지역 디자인기업 제품이 한꺼번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번에 선정된 ㈜디자인바이의 '카나리아 대기질 측정기'는 자동차,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대기질 측정 제품으로 광부들이 갱도 안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가 채굴하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제로웨이와 공동 개발한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도 디자인 우수성은 물론 기능성, 사용성, 실용성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세비앙㈜과 함께 개발한 살균 수건 '씨워터 핸드즈'는 디자인의 우수성은 물론 세계 최초로 '비접촉 근접센서식'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을 적용, 사용자가 간단한 손동작으로 조작이 가능한

접촉성 감염병 예방 살균제품으로 혁신성도 인정받았다.

㈜현대렌탈서비스와 공동 개발한 '유비스 정수기'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돌출형태의 디자인으로 차별화하고, 이용 편리성 등 사용자를 배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양씨앤에스에 납품된 경기장용 의자 '슬로우 폴딩체어'는 내구성과 오염에 취약한 경기장 플라스틱 의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최태욱 ㈜디자인바이 대표는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디자인,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디자인, 기업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으로 ㈜디자인바이의 디자인 역량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고객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光치로 전문기업, 170만불 계약 성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회 베트남 국제 치과 박람회 및 회의(VIDEC 2022)'에서 '한국-베트남 치과의료산업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지역 치과의료 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 ㈜케이제이메디텍과 ㈜코비스가 베트남 현지 기업인 Medent Anphue과 170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케이제이메디텍, ㈜코비스, ㈜옴, ㈜텐바이오, ㈜디엑스엠, 힐링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제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시원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